운천저수지에 핀 봄

9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운천저수지에 벚꽃이 만개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운천저수지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데크로드와 음악분수 등으로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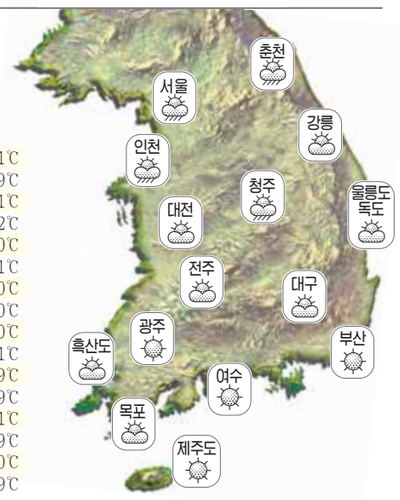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7분 해짐 19시 01분 | 달뜸 05시 44분 달짐 19시 00분

강풍주의

상층 한기가 유입되면서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광 주	맑음	1/11℃
목 포	구름많음	2/9℃
여 수	맑음	3/11℃
나 주	맑음	0/12℃
완 도	구름많음	3/10℃
구 례	맑음	0/11℃
강 진	구름많음	1/10℃
해 남	구름많음	1/10℃
장 흥	구름많음	1/10℃
순 천	맑음	0/11℃
영 광	맑음	1/9℃
진 도	구름많음	2/9℃
전 주	구름많음	1/11℃
군 산	구름많음	0/9℃
남 원	구름많음	-1/10℃
흑산도	구름많음	5/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감기지수
관심	보통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1.0~1.5m

	밀물	썰물
목포	02:05 14:21	07:18 19:33
여수	09:07 21:27	02:51 15:0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날 씨						
최저/최고	3/15	1/17	5/21	10/21	8/13	3/15

"공부 맘껏 시키게 재량권 달라"

긴급점검

광주고교 학력격차 公低私高 대책없나

공립 교장들 "학교 자율권 확대" 한목소리

교사 강제 전근 완화·기숙사 시설 확충 절실

하 균형 맞추려면

"성적은 막고 품어야 오른다.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공립 A고 교장)

"공립과 사립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심지어 2배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다. 강제로라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공립 B고 교장)

"대부분의 사립은 기숙사가 있다. 공립은 몇몇 학교에만 있다. 기숙사의 유무는 학습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공립에도 기숙사를 지어줬으면 한다."(공립 C고 교장)

공립고교 교장들 모두 '공저사고(公低私高)' 현상에 대해 인정했다. 원인과 해법도 대동소이했다. 한마디로 학교에 자율권을 더 달라는 것이었다.

◇공립고의 변명=공저사고 현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상이한 출발점'을 꼽았다. 육상으로 비유하면 사립이 한 발 앞서 출발하다보니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다는 주장이다.

양정기 광주제일고 교장은 "공·사립간 격차의 주요인은 출발점의 차이"라며 "고입 배정에서 성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율형 공립고에는 학생 선발권이 없다"며 "좋은 학생들을 뽑아놓고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뒤처졌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A고 교장은 "공립은 교육청 지침을 100% 따르려고 한다. 이를 학생·학부모들도 잘 안다. 자율학습을 조금 더 시키려해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청 지침을 제시하며 따진다. 반면 사립은 배정과 동시에 '나는 죽었다'는 생각을 하며 학교 방침을 따른다. 자세가 다른데 어떻게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라고 털어놨다.

공립 D고 교장은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진학지도의 한계를 호소했다. 그는 "급변하는 입시제도를 전문가들도 따라가기 힘든데 공립은 노하우가 쌓일만하면 강제로 학교를 떠나야 하니 맞춤형 진학지도가 안 된다"며 "근무연한을 6년으로 늘려 진학지도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자율권 보장해야=대부분의 공립 학교장들은 학력격차의 단기적 해법으로 '학교 자율권 보장'을 들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목표는 입시이고, 그 성과는 '막고 품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립은 교육청 지침을 성실히 따르다보니 사립에 비해 '학습 강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율학습·보충학습 등을 학교장 재량에 맡겨달라고 주문했다.

행·재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송경오 조선대 교수는 "비선호지역의 교육조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시설 현대화·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무엇보다 베테랑 교사의 우선 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C고 교장은 기숙사가 없어 전교 1등을 놓쳤던 사실을 털어놨다. "수석입학한 학부모의 첫 마디가 '기숙사 있느냐'는 질문이었고, 없다고 하자 며칠 후 전학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교장들은 공립 교사들의 의식 전환과 인센티브 제공 등 일반고 근무 유인책 마련도 제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산강 죽산보 바닥 보강공사

감사원 감사에서 보완 지적을 받은 영산강 죽산보 바닥보호공에 대한 보강공사가 실시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구자명)은 3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공법이 확정됨에 따라 10일부터 죽산보 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시작해 장마철인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강공사는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세굴 및 세굴 위험구간을 쇄석(작은돌)으로 채운 뒤 그 위에 SPF(Scouring Protection Form, 토목섬유 내에 콘크리트 채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익산국토청 권영래 하천국장은 "죽산보 본체는 암반 위에 설계·시공돼 보 본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견딜수 있도록 보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철저하게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학교자치 조례 위법성 있다"

교육부, 시교육청에 제소 지시

지난달 광주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광주시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위법성이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의 의결과 재의결을 거친 만큼 교육부 지시를 따르기는 힘들다"고 거부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9일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법령 위반 및 공익 저해 우려가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조례가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등을 부과하려면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법령의 위임 없이 학교 운영을 위한 기구 및 기능 등을 조례에 의무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해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이 또한 지방의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장 교육감이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오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자치조례가 지역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광주시의회의 의결·재의결을 거친 만큼 교육부의 지시에 따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의 요구는 강제사항이어서 교육부 지시를 따랐지만 대법원 제소는 법적으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대법원의 법적 절차와 상관없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법원 제소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를 거부하면 교육부가 직접 조례안에 대해 제소할 것이라고 밝혀 학교자치조례의 위법성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